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이화선 목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기업을 무르는 자 (룻기 4: 1-6)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 (하박국 3:16-19)

인간의 본성은 일이 잘되면 감사하고 일이 안되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노래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하박국이 드린 감사와 찬양은 첫째,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하박국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소유를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 절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과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낙심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하박국이 드린 감사는 없는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17 절 말씀을 보시면 6 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 밭에 식물, 우리에게 양, 외양간에 소. 이 6 가지는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없을 때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17 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번역한다면 내가 지금 실패했음에도, 병들었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실패와 역경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견디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건강이 무너짐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보며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소식

-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2. 주일 예배** - 코로나 확산으로 알라마다 카운티의 경계 단계가 올라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예배를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 3.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 AM)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1/29	12/06	12/13	12/20
대표기도	이화선	심영민	김영란	윤완선
헌화성도	서영희	김현옥	한동윤/여진화	한동윤/여진화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행사 및 모임

11 월	추수감사절	11 월 22 일 (주일)
12 월	성탄축하예배	12 월 20 일 (주일)
	정기성도총회	날짜 미정
	송구영신예배	12 월 31 일 (목)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조영문 (Vietnam)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행복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자녀 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때 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은가 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행복을 선택하기보다 불행을 선택하고 있고 긍정적이고 밝은 쪽을 바라보기보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결단해야 하고, 행복의 말을 해야 하고, 행복의 생각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불만과 불평을 말하고 보고 듣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되지 않을 것 같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성품을 인해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들으면 힘이 나고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선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내가 선택하고 누리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선택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선택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의 말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복의 생각을 선택하고 행복의 행동을 선택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내가 행복함으로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선택합시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